이탈리아의 섬유 공장에
중국인 노동자가 늘어나

과거 이탈리아의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할 때 노동력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, 때마침 동구권(東歐圈)이 붕괴하면서 실업자들이 몰려와 이 자리를 메꾸게 되었다. 따라서 거리나 공장에서 동구권의 노동자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. 그것도 얼마 안가서 중국인들로 바뀌었다. 최근에는 중국인에 관한 소문이 파다하다. 7 8년 전에 중국의 깊은 시골에서 이탈리아로 건너와 사업에 성공함으로써, 큰 부자가 된 중국사람이 나폴리의 사커 · 팀(soccer team)에 자본 참가하여, 나폴리 시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.

또한 큰 도로변 노점상의 상인으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인도 화제에 오르고 있다. 20년 전에는 밀라노의 대성당 앞에서 어린이용 장난감을 팔고 있던 이탈리아 사람이 10년 전에는 흑인으로 바뀌었고, 최근에는 중국인 할머니들이 그 행상의 터전을 차지하고 있다.

섬유공장에도 위와 같은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. 10년 전에는 흑인 노동자들이 어느 섬유공장에서나 눈에 띄었는데 요즘은 중국인 노동자가 많아지고 있다.